

‘광주 유통대전’ 재점화... “우리가 먼저” 경쟁

신세계, 터미널에 ‘쇼핑·문화·예술 복합’ 랜드마크로
현대백 ‘사전협상 마무리되면 부지매입, 2027년 완공’

그동안 잠잠했던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간 광주지역 유통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28일 광주지역 유통가 등에 따르면 광주신세계가 기존 백화점 확장 계획을 변경해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에 신축 이전하기로 했던 애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금호 유스퀘어문화관까지 백화점을 확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신세계·금호그룹은 전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 구상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버스터미널 일대를 광주시 대표 랜드마크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등 다양한 상생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등도 내용도 담겨 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지에 쇼핑몰과 문화·예술 공간을 아우르는 랜드마크급 백화점을 짓겠다는데,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처럼 쇼핑몰과 버스터미널이 결합한 ‘광주판 센트럴시티’ 구상으로 보인다.

레도수정은 했지만, ‘광주신세계 Art & Culture Park’아트 앤 컬처 파

크, 가칭) ‘콘셉트는 변함이 없다. 세계 최정수급 신세계 강남점의 ‘고품격’과 세계 최대 센트럴시티점의 ‘매머드급’ 규모, 도시 복합 문화예술공간 대전신세계의 장점을 결합한 미래형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주신세계는 530여개의 브랜드를 2배가량 확대한 1000여개의 브랜드 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확장안이 백지화되면서 1년여간 허송세월을 보냈고 광주신세계와 금호그룹 간 구체적인 협상과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오는 2027년 개장 목표가 달성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신세계그룹보다 먼저 광주 북구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에 구상을

밝혔던 현대백화점그룹도 ‘더현대 광주’ 건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예정인 전남·일신 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조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0% 안팎으로 잡정 합의에 이르면서 최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다. 오는 29일 11차 사전협상회의가 열린다.

사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더현대 광주’ 조성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사전협상이 마무리되면 부지 매입 등 출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현대 광주 착공 시기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 예정이며, 202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김 지사, 중동 세일즈 순방...‘COP 여수 유치’
오늘~12월6일 6박7일간 UAE와 사우디 방문

김영록 지사가 글로벌 도정을 펼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2월6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중동 방문길에 오른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아랍 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기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참관, 스마트팜 기술·인력 교류, 지역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첫날인 30일은 두바이에서 열리는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식에 참관한다.

이 자리에서 프랭크 코우니(Frank Cowie)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만나 전남도의 저탄소 국제회의 개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대표 외교부 김효은 기후대사 면담을 통해 33차 총회 전남 여수 유치 당위성을 설명한다.

또 탄소 국제회의 개최 최적지로 전남의 탄소중립 잠재력도 홍보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12월1일엔 ‘연안지역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전남도 주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아랍 에미리트 스마트팜 관련 기관과 스마트팜 기술·인력교류 확대를 위해 전남도-목포대-스마트팜 관련 기관 협약을 할 예정이다.

/김 호 기자

전남도, 멈춰선 연탄공장 재가동 이끌어
겨울철 공급 정상화...유관기관·생산업체 협력 안정적 공급

전남도가 겨울철 서민층의 주요 난방 에너지원인 연탄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연탄 생산공장은 ㈜남선, 화광연탄 2곳이다.

광주 송하동에 위치한 ㈜남선은 원료비 상승과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비산 먼지 등 환경민원으로 폐업 전 단계 상태였다. 화광연탄은 화순탄광 인근에 위치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실상 생산기 가동 중단 상태다.

광주·전남에는 총 3427가구(광주 760가구·전남 2667가구)가 여전히 연탄을 난방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탄공급 중단이 장기화하면 가장 가까운 전북 전주에 소재한 전주연탄에서 연탄을 수급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연간 연탄 수요량은 300만장으로 전주에서 수급하면 장당 850~900원이던 연탄 가격에 약 100원의 운송비와 인건비가 추가돼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부터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시·화순군·대한석탄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연탄공장 2개사 대표와 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실태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그 결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산설비가 건재한 ㈜남선의 공장 재가동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선이 지난 달 공장 가동을 다시 시작했으며, 연탄 사용 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김 호 기자

광주시의회 1년간 조례 247건
정비 “중복, 상위법 충돌”

광주시의회가 중복되거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등 통합·개정·폐지가 필요한 조례 240여 건을 정비했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해 6월30일 이전 제정된 조례 946건을 대상으로 당초 입법취지에 맞는지, 중복되거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전수 조사한 뒤 이 중 247건(26.1%)을 정비했다. 통합 1건, 개정 241건, 폐지 5건 등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와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는 통합했고, 유명무실한 시청 소관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와 교육청 소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등 5건은 폐지됐다.

또 107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134건은 만(滿)나이 정비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이와 함께 2014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 집행기관이 입법 평가를 진행하는 모순이 드러난 점을 바로 잡아 내년 7월부터는 집행부의 조례집행을 시의회가 평가토록 개정했다.

조례정비특위 정다은 위원장은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입법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작되는 첫 입법평가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대 토크콘서트 28일 오후 광주 호남대학교에서 변화하는 광주, 청년을 위한 기회와 약속을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특강을 마친 뒤 박상철 총장 및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국회 상대로 적극적 국비 확보 나서야”

시, 시민정책참여단 대상 내년 재정상황 인식도 설문

내년도부족 세입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광주시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나왔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광주온(ON)을 통해 시 재정상황 인식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는 시민정책참여단 3096명이 참여했다.

설문 참여 시민들은 ‘부족한 세입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광주시에 가

장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국회 대상 적극적 국비 확보(41%·1270명), 전남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35.4%·1095명), 새로운 세원 발굴 추진(15%·463명), 시 보유 자산 매각(8.7%·270명) 순으로 답했다.

미래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50.3%·1556명), ‘공감하지 않는다’ (30.9%·956명), ‘매우 공감한다’ (14%·433명),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9%·153명)는 순으로 응답했다.

‘광주시의 내년도 본예산이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들은 부자 감세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및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급감(42.8%·1326명),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31.8%·986명), 시의 국비 확보 노력 미흡(19.1%·591명) 등을 꼽았다.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광주상생카드 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42.9%(1328명)로 가장 많았다.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4개 품목 선정

축산물·된장·참기름 등 추가

광주시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축산물·된장·참기름 등을 추가, 최종 14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제2차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 품목으로 ▲베이핑도네이션 ▲김치 ▲쌀 ▲농축산 꾸러미 ▲우리밀 가공품 ▲김부각

▲양차류 ▲공예품 ▲광주상생카드 ▲축산물 ▲된장 ▲참기름 ▲매실 가공품 ▲광주FC굿즈 등을 선정했다.

기존 답례품의 경우 제도 시행 첫 해였던 점을 고려, 공급업체가 희망할 경우 재협약한다. 신규 품목인 축산물·된장·참기름·매실 가공품은 생산·가공·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조일상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